

지겨움에 대항하는 첫걸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첫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돕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도 돕지 않으십니다. 물론 일어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시발점은 우리의 도덕적(전인격적, 자발적) 선택입니다. 따라서 죽은 나무토막처럼 누워 있지 말고 뭔가 해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지겨운 일들이 거룩하게 승화됩니다.

지겨운 일은 어떤 사람의 인격의 고상함을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상과 가장 거리가 먼 일로써 그 사람에게는 가장 천하고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바로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소위 ‘가장 보잘것없고 지겨운 일’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어부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만일 너의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하느니라”요 13:14고 말씀하십니다. 지겨운 일 가운데 주의 빛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 일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지겨운 일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 일들이 거룩해집니다. 가장 진부하고 평범한 일이었는데, 그들이 하면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잘것없고 지겨운 일들을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승화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그 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겨움에 대항하는 첫걸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1. 삶의 태도

오늘 묵상 역시 신앙인들이 빠질 수 있는 영적 위험성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절망’의 문제, 그리고 그제는 ‘우울증’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모두가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것들이라면, 오늘의 주제인 ‘지루함’ (drudgery) 역시 우리의 신앙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묵상의 첫 부분은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종종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거야!”**라는 말들이 무척 신앙적으로 들리지만, **실은 나태한 우리의 변명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랜 포로생활로 지쳐있을 이스라엘을 향해 기다리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돕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도 돕지 않으십니다. 물론 일어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2. ‘지루함’이 영적 시금석이다

오늘 묵상을 이해하기 위해 ‘시금석’ (the finest touchstones)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시금석’은 일종의 슬레이트로 금과 같은 귀금속을 문질러서 순도를 측정하는 암석입니다. 챔버스가 **“지겨운 일은 어떤 사람의 인격의 고상함을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금석과 귀금속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시금석’이 귀금속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지겨운 일’들이란 어떤 종류의 것들일까요? 어쩌면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일들과는 거리가 먼, 하찮고 사소한 일들이 아닐까요? 챔버스는 **요한복음 13장**을 읽어 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어부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런 하찮은 일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주님이 하셨던 하찮은 일들이 ‘시금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영감을 가지고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잘 것 없고 지겨운 일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 일들이 거룩해 집니다. 가장 진부하고 평범한 일이었는데, 그들이 하면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를 통해 보잘것없고 지겨운 일들을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승화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부도난 수표 같은 것이고, 내일은 보장 없는 어음 같은 것이지만 오늘은 사용가능한 현찰이다. 그러니 지혜롭게 사용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가장 충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일이 거룩해 집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에 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주어진 일상을 거룩하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감화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동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사소한 허드렛일이라도 즐거이 했다” 전도서 3장 12-13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12.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❶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 ❷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하찮은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시금석입니다.

묵상 질문 지금 우리 주변에 영적 시금석이 될 만한 하찮은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레시피 ■ 사무엘상 16:1-13, 시편 78:70-72절 + 이사야 60:1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절)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3절)

그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 시각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1-12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명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7절)

하나님께서 왜 그를 지명하셨습니까? (시편 78:70-72)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를 중심을 보느니라(7절) 외모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눈(히, 아인)’이다. 중심은 ‘마음(히, 레바브)’이다. 즉 사람은 <판단하는 자의 눈들>로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판단 받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

막내(11절) (히)하카톤 ‘작다’라는 뜻. 가시적인 면에서 작고 약한 자.

짧은 기도

오, 하나님,

예수님이 목수였음을

베드로가 어부였음을

아브라함이 목자였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정직하게 제 직업에 임하는 것에
시작한 일을 틀림없이 마무리하는 것에
손을 댄 이상 잘 하도록 힘쓰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소서.

리처드 웅_직업에 대한 감사 (재미 중국인 목사) 「사권의 기도」 321